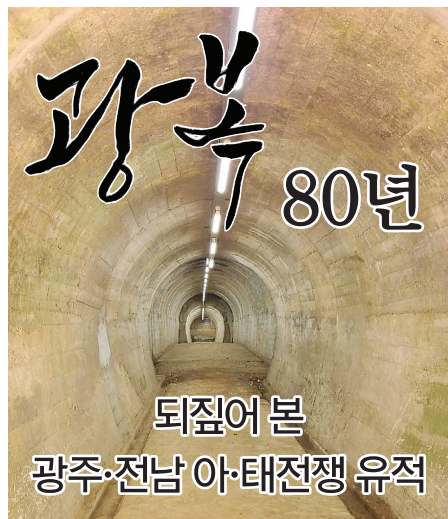


무안국제공항 일대, 일제강점기 군용 1, 2비행장 일부였다



〈12〉 무안 논·밭에 비행장 건설



4일 찾은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의 한 민가 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무안비행장 격납고가 창고로 쓰이고 있다.

망운면 일대 완만한 구릉·넓은 평야로
고지대 적고 안개 일수 낮아 비행장 최적

日, 면화 재배하던 평야에 활주로 건설
탄약고·통신시설·격납고 시설도 조성
2활주로 완성 뒤 1활주로 건설중 패망

전라도 전역 주민 보국대 형식 강제 동원
6·25 전쟁 후 피난민 수용지로 사용되기도
지금도 마늘·양파밭 곳곳 콘크리트 구조물

무안군 망운면에 있는 ‘무안국제공항’ 일대는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건설한 망운·현경면의 군용 비행장 ‘무안 1,2비행장’의 일부였다.

무안군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의해 면화를 강제 재배하면서 전남 22개 군 가운데 가장 많은 면화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주민들이 부족한 양식을 확보하려고 면화밭 사이에 몰래 콩을 심으면, 일본인 지주들이 가져 없이 뽑아버렸다는 설이 전해내려올 만큼 수탈이 심한 지역이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1943년을 전후로 망운면과 현경면의 면화 재배지 한가운데에서 비행장 건설을 추진해 지역민들을 강제노동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망운면 일대는 완만한 구릉과 드넓은 평야로 구성된 해안 지형으로 착륙에 방해가 되는 고지대가 적고 안개 일수도 낮아 비행장으로 이상적인 장소였다.

일본이 남긴 ‘보령 제430연대 제3대대 진지편성 요도’ 등 군사문서와,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기록에 따르면, 아태 전쟁 시기 목포로부터 북쪽 30km 지점의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는 일본이 건설한 무안 비행장이 있었다.

3km 간격으로 두 개의 활주로나 나란히 설치돼 있었으며, 남북 방향으로 길이 1200m(제1활주로·현경면 평산리·외반리), 1500m(제2활주로·망운면 피서리) 등 두 개의 활주로를 조성했

다. 일본은 제2활주로를 먼저 완성한 뒤, 제1활주로를 건설하던 도중에 패망해 공사도 중단했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긴 쪽을 주 활주로, 짧은 쪽을 보조 활주로로 삼는 다른 비행장과 달리 이곳은 두 활주로 모두 주 활주로 개념으로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비행장이 주·보조 활주로를 X자 모양으로 겹쳐 만드는 것과 달리, 이곳은 11자 모양으로 활주로를 나란히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활주로 외에도 탄약고, 통신시설, 격납고 등 부속 시설도 함께 조성됐다. 현재 남아있는 엄체호들의 규모로 미루어보면 가로 15~20m, 길이 14~16m, 높이 3m 안팎의 타원형 엄체호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활주로는 포장을 하지 않고 잔디를 심어 경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했고, 격납고도 경비행기에 맞게 지어지는 등 특징을 갖고 있었다.

비행장 공사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제16항공지구사령부, 제231·211비행장대대, 제154야전비행장설정대, 제161독립정비대 등 일본군 병력이 주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방 직전 이 비행장이 ‘가미카제’ 특공대 발진기지로 활용됐다는 기록도 일부 남아 있다.

비행장 건설 과정에서는 무안군민은 물론 전라도 전역 주민들을 ‘보국대’ 형식으로 강제 동원해 활주로와 군사시설 공사에 투입했다. 1943년에는 인근의 나주시(당시 나주군)에서도 강제 동

원이 이뤄졌으며,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그들을 상대로 밭도 해 주고, 하숙도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2활주로 공사 당시 망운면 피서리 조산마을에서는 전국에서 동원된 사람들의 기거를 위해 방이 2개 이상인 집에서는 1개 방을 반드시 동원된 사람에게 내줘야 했다고 한다.

‘황토’가 많은 무안군답게, 동원된 사람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오면 하얗던 옷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고 하며 비가 오는 날이면 주변이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 고통이 배가됐다고 전해진다.

해방 이후 비행장은 한동안 황무지로 방치됐다. 6·25 전쟁 발발 이후에는 망운면 피서리 일대가 피난민 수용지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며 인근 주민들에게 비행장에 얽힌 이야기는 흐릿해졌고 마늘, 양파, 고구마 밭 곳곳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뿐이다.

현재는 망운면에 있던 제2활주로 자리에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들어섰다. 무안공항 이전까지는 영암군 삼호읍에 1969년 건설된 목포공항이 운영됐지만, 활주로 길이(1500m)가 짧고 야산과 안개 등 자연조건이 좋지 않아 조종사들도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져 이곳에 2007년 11월 무안국제공항이 문을 열게 됐다. 현경면에 있던 제1활주로는 현재 도로·농지·주택지로 바뀌며 흔적조차 사라진 상태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비행장밭에 간다” 일상에 박힌 상처 여전... ‘산 역사’ 보존안 마련 시급



왼쪽부터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의 한 고구마 밭 옆에 있는 격납고의 뒷면이 토사와 수풀로 막혀있다. 입구의 천장 테두리 부분은 훼손돼 철골이 드러나있는 모습이다.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유수정마을 인근에 있는 격납고의 입구는 바닐로 막혀있다.



망운·현경면, 송정리·평산리 일대
격납고 9기 중 2기 도로 개설 등으로 소실
남은 곳도 철근 훼손, 토사·수풀에 막혀

토지 소유주 반대에 문화재 지정 추진 무산
후손 위한 역사 교육·관광 자원 방안 절실

“어디 밭 가냐고 물어보면 다들 ‘비행장 밭에 간다’ 했어요. 그 말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지요.”

무안군 현경면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의 말이다. 이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 ‘비행장 밭’이라는 표현은 낯설지 않다. 논밭 이름인 듯 쓰이는 이 단어는 사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만든 군용 비행장인 ‘무안 비행장’의 흔적에서 비롯됐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 주민들의 언어와 일상에는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가 남아 있다.

실제로 무안군 망운면과 현경면, 송정리·평산리 일대 농가 곳곳에는 일제 말기 일본군이 조성한 비행기 격납고들이 흩어져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밭 한가운데, 민가 등에 덩그러니 남겨져 방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무안 비행장 관련 격납고는 모두 5기다. 구체적으로 현경면 송정리 319·40, 송정리 343·26, 평산리 203·1, 평산리 산 204, 망운면 목동리 262·2번지 등이다.

무안군은 이들 유적에 대해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왔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 지정 절차는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12월에 지정 용역은 완료됐으나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보여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격납고는 9기였지만 이 중 1기는 도로 개설로, 또 다른 1기는 토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로 인해 소실됐다. 현재 남아 있는 격납고 대부분은 전쟁 말기인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당시 일본군이 무안 지역을 남부 방어진의 거점으로 삼고 만든 전시 군사시설이다.

이들 격납고는 인근 해안에서 채취한 자갈과 모래, 조개껍데기 등을 철근콘크리트에 혼합해 시공된 것이 특징이다. 격납고 외벽 곳곳에는 지금도 조개껍질 자국이 선명히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경면 송정리의 한 민가 뒤편에 남은 격납고는 천장에 나무 뿌리가 뚫고 자라나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새며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후면에는 토지 소유주가 창고로 쓰기 위해 덧댄 문과 계단이 설치돼있는 모습이다.

평산리 유수정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 산길로 들어가면 또 다른 격납고를 발견할 수 있다. 해당 구조물은 현재 바닐로 덮여 있었고, 내부 틈 사이로는 잡풀이 자라나 있었다. 격납고 천장에는 최근에 설치된 듯 보이는 골뚝처럼 생긴 환기구가 뚫려 있었고, 구조물 내부엔 거미줄이 가득했다.

망운면 목동리의 고구마 밭 옆에 위치한 격납고는 더욱 훼손이 심했다. 입구 천장의 테두리 부분은 절반가량 훼손돼 철근이 드러나 있었고, 후면은 토사와 수풀이 쌓여 완전히 막혀 있었다.

송정리의 한 주민은 “이 시설들을 어떻게 보존하거나 활용할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어 안타깝다”며 “후손들에게 역사교육과 관광 자원으로도 의미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체계적인 보존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